

2024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11.28.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9/10	2	1	12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손영준, 안호림, 허인순, 서신석, 강건기,
진한수, 박화선, 안성희, 이성우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4	-	-	1	15	-	15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5	-	-	15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사건사고] 출근길에 '광'...통근버스 운전자가 숙취운전 외 (9.20), 3분25초 분량으로 전날 발생한 사건·사고를 보도하는 코너였는데, 기자가 첫 번째 사고(19")와 세 번째 사고(1'45") 설명 시에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몇 차례 보면서 기사를 읽거나 (기사가 잘 보이지 않는 듯) 말을 더듬기까지 해서 시청에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스크립트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것인지, 바닥을 보면서 진행하는 모습은 시청에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안성희 위원)	생방송 진행시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가 최대한 유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실시 했습니다. <24.11월 조치>	'24.10월
보도	[경제쑥쑥] 2024. 10. 15일 보도 되었던 뉴스 제목 : "스마트폰 보였다가"...아이돌 마케팅의 명과 암, 2024년 10월 15일 경제부 한지이 기자와 함께 "스마트폰 보였다가"...아이돌 마케팅의 명과 암이라는 뉴스 제목으로 보도했던, 옴니버스형 '경제쑥쑥'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시청자들이 그 시점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핫 이슈 등을 통계 데이터로 비교 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한 신조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어원을 풀이하여 그 뜻을 해석 보도 하므로써 시청자들이 보도 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서신석 위원)	'경제쑥쑥'이라는 코너는 만들어진 지가 한 이제 4~5개월 정도 됐는데 경제부 차장 4명이 돌아가면서 진행자와 함께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일대일 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경제전문 코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자체에서 경제쑥쑥 출연진에게 시상식을 할 예정이며, 또한 시청자위원회에서 '2024 시청자위원장'으로 한지이 기자를 직접 선정 하였기에 다가오는 12월에 뜻깊은 시상식 개최 예정입니다. <24.11월 조치>	'24.10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4. 01. 01.~ '24. 12. 31.)'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6.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5.10.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5.01.31
최미연	1983.09.05	(현)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전임연구원		24.09.01~26.08.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4. 1. 1.~ '24.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손영준	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전)국회 언론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부위원장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편집위원	성정문화재단	문화	
위원	허인순	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전)한진엔지니어링 설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	
위원	서신석	현)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전)한국유비쿼터스협회 부회장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학부모 단체	
위원	강건기	현)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단체	
위원	진한수	현)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전)서초경찰서 상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안성희	현)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전)서울특별시 마을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단체	
위원	이상헌	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전)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위원	이성우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지원실 과장 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등 소외단체	
위원	박화선	현)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부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외국의 현지 언론사 보도는 우리 언론 보도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현지 언론 인용 관행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시청자위원회에서 중국 CCTV가 제작한 영상을 많이 사용하는 관행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번 11월 미국 대선도 유사한 사례이다.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 결과론이지만, 이는 선거전 주류 언론의 예상과 차이가 있다. (손영준 위원장)</p>	<p>미국 대선 보도의 승패 관련 보도는 미국 대선이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대선이 임박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고 기사를 저희가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보도만 한 3~4일 정도 봤으면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이 예측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 미국 대선 보도를 어떻게 할 건가 특히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외국 정상들을 뽑는 이런 선거를 어떻게 보도할 건가 하는 문제는 그 나라에 나오는 주류 언론 외에도 저희가 특파원이 있는 경우는 특파원이 현장 민심의 목소리를 많이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		
보도 *시청자 불만활용	<p>11월 18일 '뉴스1번지' 1번지초대석 코너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요즘 정치적 요소로 사회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패널들의 역할은 시청자에게 이슈에 대해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일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초대하여 앵커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 후 현안에 대해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들으면서 시간을 조절해서라도 반대 측 입장도 함께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호림 부위원장)</p>	<p>저희가 박홍근 의원 말고 그다음에 다음 주로 잡혀 있는 저희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을 부르는 게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균형을 1대 1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한 번은 국민의힘이 하는 식으로 일정을 맞추고 있었는데 다만 이런 건 있었습니다. 저희가 총선이나 지방선거, 대선 같은 중요한 선거 기간에는 오히려 누가 나왔고 다음 주 몇 월 며칠에는 누가 나온다는 걸 고지를 했어요. 지난 선거 기간에는 고지를 해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청자가 오해 없게 앞으로 '1번지 초대석'에서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한 명을 초대한 거고 다음에는 상대방 의원을 불러서 또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것들 앵커 멘트나 아니면 밑에 자막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라고 전달하겠습니다.</p>	○		
보도	[현장의재구성] 트럼프 랠리 숨겨진	'현장의 재구성' 일반 뉴스가 미처 다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p>종목은 '개'...머스크가 변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른바 수혜 종목들의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구성으로 미 증시 사상 최대치 고공행진 중임을 보여주고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비트코인 강세, 선거 유세 중 2번의 피습으로 경호에 더 큰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중 AI 로봇개 "스판"의 능력을 소개해줘 유익했으나 마지막에 트럼프가 정부효율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일론 머스크는 가장 AI 응용, 적용에 적극적인 사업가가 AI의 인간 멸종위기 경고를 하면서 트럼프 랠리의 AI 로봇 시장의 향후 전망을 재미있게 구성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시청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해보게하는 기획이었습니다.(허인순 위원)</p>	<p>루지 못했던 찰나의 순간을 포착해 뉴스 시청자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담당 기자들 PD 편집자가 늘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시청자들에게 다양하며 재밌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p> <p>-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p>			
<p>보도</p>	<p>[이슈5] 피부에 바른 화장품이나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히 닦으려면 꼭 필요한 제품, 바로 폼클렌저인데요. 시중에 워낙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품질을 따져보고 구매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니다. 10가지 폼클렌저의 세정력부터 가격까지 제품 간의 차이를 소비자24 누리집에서 검사 결과 확인 가능하다는 멘트가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허인순 위원)</p>	<p>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p>	○		
<p>보도</p>	<p>[현장잇슈] "선배님 나오신다 줄 맞춰~!"...이거 보면 수능 망칠 수가 없겠는데?! 신선재 기자가 보도한 수능 하루 전날, 서울 중등고등학교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의 고3 수능을 보는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한 '중등고 수능 출정식', "선배님 나오신다 줄 맞춰~!" 보도 내용은 점점 삭막해져가는 교육 현장에서의 선·후배 간의 따뜻한 온기와 정을 느끼게 하</p>	<p>'현장잇슈' 중등고등학교 콘텐츠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고 감동적인 내용 이어서 오늘자로 찾아보니 유튜브에서 100만 뷰를 육박했습니다. 정말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고 잘 만들어져서 저희가 포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는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서신석 위원)				
보도	수능 날 청심환 신중히..."무작정 먹으면 졸릴 수 있어"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수능 전 청심환과 공진단을 오남용에 대한 우려에 대한 보도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능생들이 수능 전에 체질에 맞게 잘 복용하면 좋다는 광고성 보도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신석 위원)	청심환 이 부분은 기자가 이걸 광고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보가 조금 요즘 하는 말로 TMI 조금 정보가 좀 너무 정보를 많이 주려다 보니까 조금 과한 내용들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런 류의 기사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심해서 쓸 수 있도록 데스크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뉴스현장의 뉴스메이커에서 "260g 애랑이"의 소식을 아나운서가 차분하게 잘 전달하여 너무 좋았습니다. 조서연 아나운서는 애랑이의 출생 당시 몸무게가 260g의 국내에서 가장 적은 체중으로 태어나 퇴원하기까지의 전체 소식을 차분하게 잘 전달해 줘서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나운서가 밝은 목소리로 애랑이의 출산부터 가족의 희망, 의료진의 노력, 애랑이의 기적 등을 스토리텔링처럼 듣기 편하게 전달해 줘서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시청자로서 뉴스를 보면서 잔잔한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고, 잘 전달해 준 아나운서의 자세와 목소리도 보기 좋았습니다.(강건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가 원고를 아주 감동적으로 잘 썼고 저희 조서연 아나운서가 차분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영상 구성 및 아주 잘 된 편집이어서 굉장히 괜찮았고 앞으로 이런 사실은 이렇게 시청자들이 봤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잘 발굴해서 저희들이 잘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보도 채널에서 가끔은 이렇게 훈훈한 소식도 전달 할 수 있는 창구로 잘 활용해보겠습니다.	○		
보도	"연합뉴스 TV-한국전파진흥협회, 공동협력 MOU체결"보도를 보면서 연합뉴스 TV가 과학기술 관련 많은 단체와도 MOU체결을 확대하여 3대 게임체인저(AI, 바이오, 양자) 뿐아니라 과학기술 관련 12대 전략기술 등으로 이슈를 다양화하여 과학적 기반의 심포지	연합뉴스TV는 한국전파진흥협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AI관련 기관과 MOU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3월 연합뉴스TV심포지엄과 9월 연합뉴스TV경제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관련 아젠다를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움을 많이 주최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강건기 위원)				
보도	일본은 원폭 피해자 노벨상 수상...한국인 피해자 현실은, 해당 보도는 지난 1956년 결성하여 전세계 핵추방을 외치며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본 원폭 피해자단체협의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어 앵커는 "일본은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 원폭 피해자와 그들의 2세대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2015년 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일부 진료비 지원과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10만원이 전부"라고 지적합니다. 이 기사는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현재까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현실을 전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도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2세대를 포함한 피해자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내용조차 없어 아쉬웠습니다. (진한수 위원)	이 사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유리 원폭 피해자 한국인 피해자의 전반적인 거를 다룬 사안인데 여기에 이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은 또 경기도 의회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니까 전반적인 어떤 기사의 어떤 형태가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을 저도 좀 받았고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좀 알아보더니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기획성 리포트라 경기도의원 인터뷰를 넣었고 주로 경기도 상황 위주로 기사가 작성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취재 내용이 한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좀 더 다각적으로 취재를 해서 리포트를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뉴스프리즘]일본은 70세까지 일하는데...정년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생애주기별 패턴이 늦어짐에 따라 과거 노인으로 취급되었던 60세 이상은 더 이상 사회인식 속에서도 노인이 아니다. 60세 정년은 더 이상 가정에서는 그동안 수고한 가장의 모습도 사회 속에서는 산업화를 이끈 세대로 존경받는 모습도 아닌 것 같다.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부양해야 할 부모와 사회적으로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해	저희가 이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건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수준들 자체가 많이 뺏어나가지 못한 상태여서 저희 보도 자체도 아직은 기본적인 것을 건드리는데 수준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추가 보도를 통해가지고 내년에도 이 정년 연장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 연합뉴스TV가 조금 선도해서 논의를 이끌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보호해줘야 할 자식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활발히 일할 수 있음에도 밑에 후배직원들로부터 퇴물 취급을 받거나 은연중에 자리양보를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정년연장에 관한 보도를 통한 공론화는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방송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었지만 신규세대간의 조화, 다가오는 AI시대에 노년층 일자리의 적응여부, 정년연장으로 인한 전반적인 노동시간의 축소문제 등 여전히 궁금하고 다뤄졌으면 한다. 화두는 이미 던졌고 정년연장의 문제는 사회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제이니 만큼 균형감있는 추가적인 후속보도를 통해 닥쳐올 사회변화에 맞춰 세대상화간 공감할 수 있는 여론형성이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박화선 위원)</p>	<p>보도록 하겠습니다.</p>			
<p>보도</p>	<p>떠나는 청년 공무원들...지자체들 “퇴직 막아라” 대작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철밥통,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공직에 대한 매력 저하로 청년 공무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보도는 두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보도였던 것 같다. 그러나, 방송에서는 공무원이 왜 청년들에게 외면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언급되지 않은 채 청년 공무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직 사회가 변해서 청년들이 외면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직 사회가 변하지 않아서 청년들이 외면하는 것인지 등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이 추가되었다면 좀 더 알찬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박화선 위원)</p>	<p>저희가 기획 진단 두 편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요. 아마 두 번째 편을 주로 보셨던 것 같은데 첫 번째 편에 조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돼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따로 별도로 나가다 보니까는 두 번째 것만 보면 이런 부분이 잘 포함이 잘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긴 한데 첫 번째 부분에 저희가 이게 공무원들 자살 했던 거 이 문제로 저희가 이 안을 다루기 시작한 이후 다루게 된 건데 그런 부분 중 큰 원인이 직장 내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지적을 했고 다만 이제 그게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떠나는 이유에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AI 시대나 이런 시대를 맞서 다양한 직업이 다양화되고 여러 가지 고도화되는 이런 시대를 맞아지고 공무원이라는 직종에 대한 매력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꼭 이번처럼 진단이 아니어도 관련된 리포트에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폭넓게 현상을 진단하겠습니다.			
보도	[뉴스프리즘] 일본은 70세까지 일한다는데...정년연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 '저출생', '인구감소', '노인 연령 상향', '국민연금 연령 상향' 등 그 배경과 사회적 인식, 노동계·경영계의 입장, 논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다루고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구성이었습니다. 수치나 사례 등이 많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자막이나 그래프 등 시각화 자료가 함께 표시되어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으나,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 관련 설명에서는 시각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청자 이해를 위해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안성희 위원)	'뉴스프리즘' 정년 연장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뉴스프리즘이 15분짜리인 분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비교적 그래도 짜임새 있게 잘 만든 그런 콘텐츠였다고 보입니다만 조금 미비한 부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다음에 정년 연장 관련한 콘텐츠를 만들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		
보도	[출근길 인터뷰] '정년이'로 돌아온 여성국극...원로배우가 전하는 이야기 드라마 '정년이'의 인기로 여성국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극에 대한 소개와 국가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여성국극 대중화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인터뷰 내용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인지, 재촬영으로 보완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성희 위원)	'출근길인터뷰'는 저희가 다시 촬영하고 이런 건 힘들었던게 이게 생방송입니다. 인터뷰 장소도 여성국극예술협회 사무실로 하려 했으나 협회 사무실이 공사 중인 관계로 부득이 회사 로비로 모셔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방송 요령 등을 전달하고, 담당 PD가 사전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생방송 전 최대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인터뷰 대상자가 방송 경험이 없는 경우 당초 얘기하려던 내용을 다소 소화하지 못하거나, 중복해서 발언하는 등 생방송 성격상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출연자에 따라 생방송에 더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 더욱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기타	<p>‘알면좋은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말그대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알면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봐야 알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14일에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다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됐다거나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줬고, 13일에는 김장재료와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소개하는 등 시기에 따라 혹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시의성 있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선 딱딱한 뉴스들보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해당 코너는 뉴스피드에 포함시켜 접근성을 높여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헌 위원)</p>	<p>다. 알면 좋은 뉴스가 내용이 좋다고 이거를 유튜브 앞에 화면 피드에다 놓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		
보도	<p>[단독] 신분증 없이도 똑딱...대포폰 개통 불법 프로그램 다시 활개 (11.19.), 이번 뉴스는 신분증 없이도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이 통신업계에서 또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연합뉴스TV의 고발성 단독보도는 개인 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 경종을 울릴만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공영성을 지닌 연합뉴스TV가 이러한 언론 본연의 충실한 역할 수행으로 사회 제도 개선에 꾸준한 기여를 이루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이성우 위원)</p>	<p>저희 이런 류의 보도가 신문이나 통신사는 하기 힘들고 방송만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도인데 앞으로 이런 일종의 고발성 이런 보도들을 많이 다루서 제도 개선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저희 단독 보도를 쓴 나경렬 기자가 사회부 기자인데 아주 문제의식이 많고 취재를 열심히 하는 그런 기자여서 상당한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p>	○		